

# 백신 접종률 올라가자 소비 살아났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사진=유튜브(KTV국민방송) 캡처

수출 활황에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던 소비 부문이 날개를 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 속에 감염 확산세마저 둔화하면서 이른바 ‘보복 소비’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가 확연히 늘어나면서다.

8일 ‘이코노미스트’가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음식료품·의약품·화장품 등과 같이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비내구재 판매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온 것과 대조된다. 특히 화장품은 지난해 12월 30.2% 판매 감

소 겪을 정도로 타격을 입었지만, 지난 4월 판매 증가율 15%를 기록했다.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저가인 상품을 의미하는 준내구재 판매도 회복했다. 4월 준내구재 판매지수(계절조정)는 111.3을 기록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105.0) 수준을 웃돌았다. 지난 3월엔 준내구재 판매 증가율이 35.4%를 기록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20.5로 1995년 이후 최고치를 냈다.

코로나19 확산 후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백신 접종 확대를 계기로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따르면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14.8%로 세계 평균(11.5%)를 넘어섰다. 문 대통령은 “3분기 50대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국민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DI는 올해 한국 경제가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백신 접종률 확대를 통한 집단 면역을 조기에 달성할 경우 추가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주거형 오피스텔 ‘수요’ 증가 ... 아파트 중심 규제 탓

주거형 오피스텔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진 점이 오피스텔 강세를 유발했다고 분석한다.

또 오피스텔 분양권을 소유해도 아파트 청약 시에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아 청약 자격이 유지되며, 오피스텔의 경우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부동산규제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의 이목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에는 전세 대출을 받은 수요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3억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구매할 시 전세 대출을 회수하는 규제가 추가됐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반드시 전

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오피스텔은 이러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천, 수원, 동탄, 분당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속속 건축되고 있다. 전철이나 광역버스를 이용해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에서 1만 717건의 오피스텔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 1월(8,902건) 대비 20.39%가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수도권 오피스텔 거래량 상승률인 4.75%보다 5배나 높은 수치다.

반면 올해 3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5만 98건으로, 1월 5만 6,012건보다 10.56% 감소했다. 지난해 3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7만 4,000건이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 가계빚 증가세 멈췄다 ... 7년 4개월 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췄다. 사진=타운뉴스DB

가파르게 치솟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5월 들어 멈췄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2021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24조1,000억원으로 전월(1,025조7,000억원)에 비해 1조6,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2014년 1월 2조2,000억원 감소 이후 7년 4개월만에 처음이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월 1,003조1,000억원으로 첫 1,000조원을 돌파한 뒤 3월 1,009조5,000억원, 4월 1,025조7,000억원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다 5월 들어 이러한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28~29일 진행된 SKIET(SK 아이테크놀로지) 공모청약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급증한 가계대출이 5월 3일 청약 증거금 반환으로 다시 줄었기 때문이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로 구성되는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47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원 늘었다. 증가폭은 전월(5조2,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4월 말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기타 대출 잔액은 276조원으로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폭은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4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금액 가운데 8조원 정도는 SKIET 청약 증거금과 관련해 대출이 실행됐다가 5월 들어 반환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지난해와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에는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